



미국 '하와이'

인 간에게 1백세 수명은 이제 꿈이 아니다. 비약적인 의학 기술의 발전과 합리적인 식 생활을 통해 1백세를 넘어 사는 사람들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깨끗하고 조용한 자연환경 역시 인간의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하와이는 적합한 곳이다. 세계적인 휴양지이기도 한 하와이는 은퇴를 한 노인이나 심신의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편안한 여생을 즐기고 있다.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는 수천만년 전 해저화산의 격렬한 폭발로 이루어진 섬이다. 하와이 제도는 8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일 큰 섬인 하와이 섬을 비롯하여 오하우 섬, 마우이 섬, 몰로카이 섬, 니하우 섬, 라나이 섬, 카우아이 섬, 카호올라웨 섬이다.

이들 섬 중 하와이 제도에서 중심이 되는 곳은 오하우 섬이다. 하와이의 수도인 호놀룰루가 이 섬 내에 있다. 하와이 최대의 관광지라 칭송되는 호놀룰루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아열대성 기후로 일년내내 초여름 날씨를 유지한다.

얼마 전 하와이를 방문하여 흥미로운 곳을 두루 다녔다. 처음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환영나온 분이 붉고 현란한 꽃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었다. 레이(Lei)라고 불리는 이 목걸이는 하와이 주화(州花)인 하비비스쿠스(붉은 색 무궁화 계통의 꽃)로 만든 것이다. 홀로 장기간 여행하다가 모처럼 아는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다.

▼ 미국 하와이 오하우섬 다이아몬드헤드 - 약 10만년전 화산폭발로 쌓인 지름 1,200m의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 사화산(死火山)



찾 아 서



그날 오후 하와이라고 하면 한국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찾아갔다. 세계적인 휴양지이기도 한 와이키키 해변의 약 4km에 이르는 고운 모래사장 과 수정같이 맑은 바닷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했다.



▲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심신의 피로를 씻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온다. 자연과 벗삼아 지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해변엔 일광욕을 즐기는 반라의 여인들이 많고, 뒤로는 야자수 넓은 잎이 바람에 설 새 없이 휘날리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은 여로에 지친 사람의 피로를 씻는데 더할나위 없이 좋았다. 휴식처 이곳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다음날 오전에 찾아가 한나우마 해변(Hanauma Bay)은 더욱 이상적인 휴양지였다.

이곳은 말발굽 모양으로 구부러진 백사장과 산호초, 그리고 푸르고 투명한 바다로 유명한 곳이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물 밑을 들여다 보니 얕은 곳인데도 형형색색의 수많은 열대어들이 오가고 있었다.

산호초 위에 붙은 먹이를 쪼아대는 수십 마리의 물고기 떼를 보면서 좀 더 깊

은 곳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고 물빛은 짙은 녹색색으로 바뀌었다. 험상궂게 생긴 큰 물고기들이 밑에 웅크리고 있고 그 위를 스노클링 장비를 하고 지나가노라니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하나우만 해변은 하와이 해양자연 보호구역으로 낚시를 못하는 것은 물론 돌맹이 하나 마음대로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만큼 자연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열대어들은 사람을 두려워 않고 가까이 다가온다.

하와이에 머물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니 다양한



▲ 하와이 고유의 민속춤을 선보이는 하와이 주민들

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느꼈다. 원래 하와이 제도의 원주민은 폴리네시아 사람들이다. 1778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이 섬을 발견하기 전에는 폴리네시아 고유문화가 꽃피고 있었다. 그러나 서서히 서구문명의 영향을 받아 1897년 미국에 합병되고 말았다.

현재 하와이에는 폴리네시아계 인종이 가장 많이 살고, 그 다음이 백인, 일본계, 필리핀계, 중국계 순이라고 한다. 조선말기부터 이곳에 이주해 온 한국인 후손들도 적지 않게 살고 있다.

오하우 섬에서 인상깊었던 곳으로는 폴리네시아 문화센터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하와이 족을 비롯하여 타이티, 사

세계의 장수국을 찾아서 세계의 장수국을 찾아서



▲ 하나우마 해변은 말발굽 모양으로 된 세계적인 휴양지로 휴식을 취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곳이다.

모아, 통가, 피지,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에 여러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 학생들이 공연을 한다. 그들은 여러 종족의 민속춤을 선보인다. 이들은 인근 브리검 영 대학의 학생들로 공부도 하면서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에서 무용수나 악사, 가수 등으로 일하는 것이다.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에서는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생활습성과 고유의 집 등을 이해하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와이 섬은 현지 사람들이 '빅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큰 섬이다. 하와이에 있는 다른 7개 섬을 합친 것보다 크다. 이 섬안에는 사화산인 마우나케아산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는 마우나로아 화산(해발 4,170m)이 있다.

미국 국립 노화연구소에서는 무병 장수를 기원하던 중국 진시황의 꿈이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첨단의학으로 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사전에 검진하고 치료하면 인간의 수명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세계적으로도 100세 인구의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 하와이 노인들은 때로는 훌라춤을 추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미국의 경우 1940년에는 1백세 이상 인구가 3천 7백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는 6만명을 훨씬 넘고 있다. 향후에는 더욱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와이 같이 오염이 적은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와이는 지상 낙원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7]

글·사진 / 허 용 선 (여행 칼럼니스트)